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으로 돌아보는 협회 활동



그렇다.  
그땐 그랬다.

1 1965년도 제1차 전국결핵실태조사 엑스선 검진반에 접수된 모든 주민은 결핵반응검사(투베르쿨린) 주사를 맞도록 되어 있다. 2 1960 Seal 가두판매 3 1957년 설립된 전진상 의원(서울 구로구 시흥동 소재) 불우결핵환자 치료 현장 4 1966년도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BCG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있는 보건소 결핵 관리간호사 5 4월 11일 세계보건일 기념 결핵예방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하는 대전 대성여자중학교 방광숙 양



1950~60년대

캐롤이 울려 퍼지는 도심의 거리 한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소리,

“올해 크리스마스 썰이 나왔습니다. 썰 구경하세요, 마음을 나누는 썰이에요!”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가판대 앞, 한 여성이 썰 가두판매를 하고 있다. 그 뒤로 ‘결핵예방을 위해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썰과 함께’라는 대형 포스터가 표어가 눈에 띈다.

1965년, 전국적으로 결핵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던 해다. 굴곡지고 흠먼지 날리는 도로를 세군검사반이 달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이내 결핵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결핵반응검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자 동네사람들이 수군덕거린다. 그리곤 돌아서서 한 마디씩 던지는 말, “이것이 뭐여?”, “이걸 맞으면 피 토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난 이거 맞지 않아도 끄떡없어”... 하지만 이내 “다 같이 맞아보자”며 팔을 내밀기 시작한다.

결핵실태 조사에 대한 입소문은 한 고개 두 고개를 넘어 이듬해에는 충청도 한 농촌지역에 다다랐다. 그래서일까, 맘씨 좋아 보이는 이모 혹은 누나 같아서일까, 이곳 아이들은 BCG 예방접종 주사를 처음 접하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기다려주는 여유까지 보여준다.

1969년 4월 11일, 세계보건 기념 ‘결핵예방 웅변대회’가 지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리고 이날 대전 대성여자중학교 대표로 나온 방광숙 양은 이렇게 외쳤다.

“결핵 없는 나라, 건강한 나라, 너도 나도 썰을 사서 결핵을 퇴치해야 한다고 방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렇다. 그때 그랬다. 썰을 사는 것이 곧 “결핵 퇴치”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아, 더워요. 엄마 얼른 집에 가요”

칭얼대는 아이들의 소리에도 엄마들은 곳곳이 그 자리에 서서 결핵 예방접종 순서를 기다린다. 1970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골목길, 'BCG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복십자의 하얀 차, 복십자 표 옷 입은 누나가 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이 네 차례니까!”라는 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누나다.

이듬해, 이번에는 복십자가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 떴다. 배 밑머리 '복십자호'를 새긴 배가 1971년 4월 20일 무의도 앞바다를 순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십자의 놀라운 시도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우체국 창구에서 크리스마스 썰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또, 대로 위와 거리 벽에는 홍보용 플랜카드가 게양되고 전단지가 붙여졌다. 플랜카드에 새겨진 문구는 다음 아닌 “거리에 침을 뱉지 마시다”며, 이를 주제로 한 인형극도 상영했다.

한편, 이 와중에도 노련미 넘치는 우리의 김은란 동부조사대 간호사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결핵균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좌측 팔의 안쪽 피내에 투베르쿨린 용액(RT23 2TU)을 주사한 뒤 48~72시간 이후 주사부위의 부어오름 정도로 감염 여부를 판정) 후 장거리 타 지역으로 출타한 수검자를 추적하여 판독을 하는 역량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 그땐 그랬다. 침을 뱉는 것은 “결핵균의 이동”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1 1970년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만5세 이상 주민 검진과 생후 2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BCG 예방주사 실시 2 1971년 차량 내 암실에서 필름 현상(박현순 X-선 반장) 3 매년 우체국 창구 크리스마스 썰 판매 4 1970년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후 장거리 타 지역으로 출타한 수검자를 추적하여 판독하고 있다. 동부조사대 김은란 간호사 5 특별결핵계몽용 플랜카드가 시내 요소에 게양되었음(4/20-5/31)

- 1 1988년 11월 본회 기금과에서 아동 크리스마스 쉼 우표 모음 당선자와 함께
- 2 1985년 3월 8일 제5차 결핵실태조사 단원에 대한 교육
- 3 1993년 11월 15일, 손명숙 여사에게 쉼을 전달하는 한용철 회장
- 4 1985년 제5차 결핵실태조사 광경을 취재하는 KBS 마산 방송국



1980~1990년대

제5차 결핵실태조사 단원이 꾸려진 1980년대 초, 강의실 한 편에는 이번 조사를 성공리에 수행해내리라는 단원들의 교육 열로 뜨겁기만 하다. 이에 못지않게 아이들 사이에선 쉼을 모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색 현상이 빚어졌다. 급기야 1988년 본회 기금과에선 최고로 많은 쉼을 모은 아동에게 수상을 통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도 했다. '그나저나 요 녀석들 ~~~, 쉼을 많이도 모았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그렇다. 그땐 그랬다. 쉼을 사서 모으는 것은 “결핵 예방”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

## 쉼 속 틀림그림 찾기

1971년 한국민화를 주제로 변종화 화백이 그린 도안에 의해 완성·발행된 쉼입니다. 쉼 속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협회 본부로 보내주세요(엽서 참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편집실-

